

숲 정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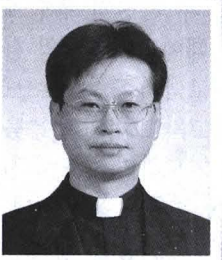
교구계간지 1년 구독료 : 10,000원
후원계좌 전부 505-13-0313012

쌍백합

대림 제 3주일 2007년 12월 16일 (가해)
(자선 주일)

강론 ...

신기루



김진룡 신부
(사목국장)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이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것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혼신을 다한(마태 11,2 참조) 물음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실 분께서 선생님이십니까?” 사실 이 물음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광야, 험한 날씨, 위험, 거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굶주림도 참아가며, 사람들을 향해 왜 “회개하라”고 외쳐야만 했는지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단순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힘이 넘칩니다.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소경, 절름발이, 맹인, 나병환자 등 유대 사회에서는 이른바 ‘공인된 죄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고 죄를 용서 받았으며, 그로부터 새 세상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지금 눈 앞에 나타났고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듣게 될 요한에게는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활짝 꽃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성심껏 살았던 삶이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습니까? 나부끼거나 몰아치는 바람의 방향대로 자신의 온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갈대의 인생을 동경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겠지요. 사람들에게 받는 부러움을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삼는 그런 인생도 아니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친 영혼을 구해 줄 그분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신기루(蜃氣樓)가 걷히고 새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 분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숨어리 생각



성녀 아가다(+250)

윤 클레멘트 신부

카타니아의 순교자이고 시칠리의 동정녀라고 불리는 그녀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에서 부유한 가정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데, 일찍부터 그녀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봉헌하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출생한 땅은 카타니아인가 아니면 팔레르모인가에 대한 설(說)들이 있지만, 더 오래되고 강력한 주장은 카타니아가 더 유력하다. 그녀는 봉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 매우 사랑받는 성녀이고, 그녀는 실로 놀랄만한 덕행을 보여준 순교자이다.

그녀는 한 원로원 의원의 간교한 유혹을 물리치고 결혼하자는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극도의 고초와 고문을 받은 후 순교의 영광을 받는다.

그녀의 순교와 공경에 대하여는 역사적으로도 확실하지만, 상세한 기록은 보존되지 않은 채 마치 하나의 전설처럼 전하여진다. 6세기경의 한 전설에 의하면, 쿤타니우스라는 원로원의 한 의원이 그녀를 유혹하고 결혼을 제안하지만 단호한 그녀의 거절로 인하여 그녀는 무서운 형벌과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박해자는 마침내 그녀의 가슴까지 도려내고, 그로부터 4일 후에는 그녀를 이글거리는 석탄불에 넣었다고 한다.

그 잔혹한 고문의 순간에 그 읍내는 무서운 지진으로 흔들리는데, 사람들의 봉기를 두려워한 그 원로원 의원은 다시 불길에서 그녀를 꺼내어서 감옥에 넣었고, 감옥에서 그녀는 순교한다. 그녀가 받은 무서운 고초와 고문에 대한 그녀의 순교는 중세의 교회에 많은 힘과 위로를 주고,



본받아야 할 덕행으로서도 장려되었다.

어느 시대에는 카타니아의 도시가 지진의 위협에 처했을 때에, 그 도시의 사람들은 그녀의 도움으로 보호를 받고자 그녀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도시 전체에 종소리를 울렸는데, 그녀는 후에 종을 만드는 이들의 주보성녀가 된다. 그녀는 순교의 고초 중에 박해자로부터 가슴이 도려

내어지는 형벌을 받았는데, 후일 그녀는 가슴이 아픈 여성들의 주보성녀가 되어 그들로부터 보호자로 공경 받는다. 아울러 그녀는 간호사들의 주보성녀로 공경 받아오고 있다.

그녀는 특히 동정과 동정생활에 대한 탁월한 모범을 보여준 성녀로서, 오랜 교회의 전통은 그녀를 그리스도인 봉헌생활과 동정에 대한 한 표본으로서 거울삼아 왔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정생활과 봉헌생활의 매력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동정생활과 봉헌생활은 강요가 아닌 오로지 본인의 선택과 하느님의 은총임을 우리는 성녀 아가다의 삶과 순교를 통해 묵상할 수 있겠다.

다음은 그녀가 극심한 박해와 고초를 견디면서 감옥으로 이송되던 중에 드렸던 기도라고 전하여 온다. “오 주님, 나의 창조주이시여, 당신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형벌의 고통에서도 제가 인내할 수 있게 보호하셨나이다. 이제는 이 몸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상황압력을 고려해야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몇 가지 단편적인 행동만 보고서 너무도 쉽게 성격을 운운하며 단정 짓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는지 고려하지 않고. 이를테면 월말 은행창구에서 매우 사무적이고 불친절한 직원을 접할 때, 그 직원은 서비스 정신도 없고 모가 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단정 짓기 쉽다. 그가 그날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접하며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의 힘을 당연히 고려해야 함에도 사람들은 쉽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가변적인 상황의 압력을 무시하고 안정적이고 변하기 어려운 성격적인 요인만이 갈등 상황의 원인인 것처럼 단정 지음으로 인해 악순환에 빠지는 갈등 관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다. 즉, 본인의 행위를 야기시킨 요인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상대방의 행위를 야기시킨 요인을 설명할 때는 상황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하고, 대부분 모든 요인을 상대방의 성격성향으로 돌려버리는 현상이다. 상대방이 처했던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면서도 결

국 하는 말은 '그래도 그렇지!' 이다. 나에게 있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힘을 이해받고 싶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대방의 상황적 압력도 고려해 줘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변화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때때로 상대방의 행동은 변화 가능하다. 왜냐하면 갈등상태에 있는 내가 상대방의 상황을 이루고 있는 환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상황인 나를 변화

시킴으로 해서 상대방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가족 중 한 사람의 상담치료를 통하여 가족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족치료의 원리이다. 심지어는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 폭력도 그러한 행동을 유도하는 듯 한 상황 압력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박윤지(보나)
가정상담 봉사자



입당송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이사 35,1-6L,10

화답송 시편 146(145), 6c-7,8-9,9L-10(◎ 이사 35,4 참조)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제2독서 야고 5,7-10

복음 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도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도다. ◎

복음 마태 11,2-11

영성체송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께서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무지개 인권영화제 열려

지난 12월 6일(목)부터 9일(주일)까지 가톨릭센터 및 우전성당, 서신동 성당, 평화동성당을 돌며 무지개인권영화제가 열렸다. 인권영화제는 전북 평화인



권연대에서 작년까지 12회 동안 이어오던 것을 올해 전주교구 이주사목센터와 손잡고 무지개 인권영화제로 새롭게 태어났다. 특별히 올해 인권영화제는 '내가 나 그네 되었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인권 및 지역사회 정착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이주여성들에 관한 다큐 영화 '멋진 그녀들'과 이주노동자를 그린 '잠수왕 무하마드'를 함께 상영했다. 첫날에는 조약돌(문화연대 가수)의 문화공

연이, 둘째날과 셋째날에는 영화감상후 전주형씨(전북 평화인권연대 집행위원장)와 함께 하는 토론시간이 마련되었으며 마지막날에는 평화동성당에서 송년홍 신부의 집전으로 인권주일 미사가 봉헌됐다.

홍보국 정례

● 가톨릭 전북문우회 송년미사 및 빛무리 출판기념회 ● 신대인 성당 사목 연수회

가톨릭 전북문우회(회장=이형구, 지도=서석희 홍보국장 신부)는 지난 12월 8일(토) 새교구청 강당에서 서석희 홍보국장신부의 집전으로 송년미사를 봉헌하고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미사중에는 2007년 빛무리 봉헌이 있었으며, 이어진 송년의 밤에는 크로마하프 공연을 비롯해 문우회 회원들의 시낭송과 독창이 이어졌다. 홍보국 정례

신대인 성당(주임=김봉술 신부)은 지난 12월 8일(토)부터 9일(주일)까지 산의 테마 공원에서 사목회 임원, 구역장, 공소 회장, 제 단체장을 대상으로 본당 설립 80주년 준비를 위한 사목 연수회를 가졌다. 이선숙 기자

● 새터민 초청의 밤 행사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회장=서동호, 지도신부=유장훈신부)는 지난 12월 8일(토) 관내 거주 새터민 29명을 평화동 소재 양말갈비집에 초청하여 조촐한 식사를 대접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먹한 분위기였지만 식사를 함께하고 나서 2차는 술자리로 그리고 마지막코스는 노래방으로 이어져 서로 격의없이 하나되는 형제애를 나누었다. 홍보국 정례

● 신동 성당 사목회 임원·제단체장·구역장 워크숍

지난 12월 9일(주일) 신동 성당(주임=이사정 신부) 사목회 임원과 제 단체장 및 구역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나바위성당 교육관에서 '가정 안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이웃 안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지역 안에서 신동성당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손희정 기자

● 지곡 성당 레지오 마리아에 연차 총친목회

지난 12월 9일(주일) 교중미사 후 지곡 성당(주임=김병운 신부)은 레지오마리아에 연차총친목회를 개최했다. 21개

선물세트 / 제사용품

고급생선 전문점

100번 수산

이복동(마태오) 리더아(이미숙)

227-7877, 011-652-8045

이전개업(구 칸보석)

보석전문점 **헤르세**

이동주(도비아) 박영실(헤레나)

서신동 호남문고 맞은편

063)275-0076 / 011)9215-9900

◆◆◆우리땅 성지순례 안내◆◆◆

일시: 08.11.2(토) 9시 장소: 마산교구내 성지

인원: 40명(접수순) 출발: 안골사거리(인후동성당)

참가비: 일반인(간식 및 음료제공)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전국 성지로 출발합니다.

(유)세명여행컨설팅

조명숙(베르디아나) 강희영(가브리엘)

전주시 인후동 1가 768-10(안골사거리)

TEL:244-0212, HP:018-622-0707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확정아전)

강삼신(안철모) 최유미(안철라)

매주 토요일 오전 무료 법률상담

전주 노동부청사 정문앞(3층 건물)

☎(063)253-3750~1, FAX: (063)253-3263

김정용 국내산 새우젓 각종 젓갈, 소금 식품, 건어물류

서해젓집

동부 민물 건강원

(각종 중탕및 과일즙)

삼천동 농협공판장 내

227-8111 / 011-675-0091

염정례(리디아)

시크 헤어

원장: 이소근(베로니카)

친환경 펌 & 염색

파티회장 & 올림머리 전문

전주 마마트 야외주차장 앞

063) 275-3535

유* 사랑외과

유방 전문 클리닉

유방암 검진

원장 소우성(스테파노)

서신동 E마트앞

☎(063)253-6075

성지순례

127차 2008년 1월 2일~12일(10박 11일)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128차 2008년 1월 10일~23일(13박 14일)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아제시, 루르드, 프랑스, 파리

2008년 1월 저렴한 경비, 보람된

여정으로 은총속에 출발합니다.

전일관광 조진(안토니오)288-6666

전북종교예술제 '혼의 소리' 개최

지난 12월 9일(주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전북종교인협의회가 주최한 전북종교예술제 '혼의 소리'가 열렸다. 범우스님의 승무로 문을 연 이날 예술제에는 인보성체수도회의 그레고리안 성가를 비롯하여 천도교 용담검무보존회의 용담검무, 한



몸소리 예인회의 국악찬양, 원음예술단 합창단의 합창등 각 교단에서 준비한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졌다. 전북종교인협의회는 1996년 발족했으며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불교 등 5개 종단 인사들이 모여 전북지역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홍보국 정례

쁘레시디움이 성가경연대회를 통하여 친목과 화합을 다졌으며 소년 뿌레시디움 단장 7명에 대한 특별상, 1년 개근자, 최우수 뿌레시디움 그리고 분야별 우수단원에 대해 시상했다. |김영수, 이미원 기자

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중지도신부로 정유진신부(서곡분당주임)를 추대 했다. |홍보국 정례

● 부안 성당 견진성사

지난 12월 9일(주일) 부안 성당(주임=김원중 신부)에서 132명에 대한 견진성사가 교중미사중 거행되었다.

이 날 주교님은 강론에서 "사랑은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 먼저 성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자"며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에페 6,17)란 말씀을 주셨다. |최진순 기자

● 삼천동 성당 레지오마리아에 연차 총 친목회

삼천동 성당(주임=김병환 신부)은 지난 12월 9일(주일) 레지오마리아에 연차 총 친목회를 개최했다. '바다의 별과 자비의 모후' 양 꾸리아의 소속 레지오단원 모두가 지난 일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친목과 화합의 기쁨을 나눴다. 1부에서는 우수 뿌레시디움과 우수 단원에 대한 시상식을, 2부에서는 각 뿌레시디움별 장기 경연대회가 펼쳐졌다. |서송원 기자

● 교구 군중후원회 창립총회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회장=서동호, 지도신부=유장훈신부)는 지난 12월 8일(토) 가톨릭센터 3층강당에서 회원 22명(후원회원신청자 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우리 교구의 현안이던 군중후원회 창립총회를 개

● 쌍교동 성당 길멜의 모후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

남원 쌍교동 성당(주임=박성팔 신부)에서는 지난 12월 7일(금) 갈멜의 모후 꾸리아 연차 총 친목회를 가졌다. 1부에서는 각 뿌레시디움 장기자랑, 2부에서는 최우수 뿌레시디움으로 애덕의 모후, 최우수 단원으로 여성부문 이형숙 자매, 남성부문 오상선 형제, 장기자랑 최우수상은 바다의 별 뿌레시디움이 각각 차지했다. |강인식 기자

수액 · 수세미즙

참살이 수세미 농원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유기농 재배(무농약 인증)

박미나(세실리아)

063)255-8090, 010-6536-1117

군산 햇님토이 완구점

크리스마스완구 대바겐세일

전동차 및 완구전품목

각종 추리용품, 나무 할인판매

군산 내운동 KT전화국 앞 / 문의: 471-1853

국내입양전문기관 (해성보육원)

샬트르 성바로로 수녀회 운영

신생아 및 연장아동 입양상담

문의 : 032-875-3240

www.hschild.or.kr

2008 박성리학전파신생생모집(1인)

*매학기 등록금의 30% 장학혜택(야간)

●지원자격: 고교졸업이상(수능무관)

●모집기간: ~2008.1.18(금)

●문의: 김석희(오한보스교)011-671-6196

담당교수: 010-3937-9022

<익산> 한빛정형외과

패적인 입원실, 물리치료실

원장: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리아)

- 저녁 8시까지 진료합니다 -

☎ 837-2222~4

(영등동 제일1차 APT옆)

She's Clinic(쉬즈성형외과)

디에드 피부비만성형network 전주점

전신지방흡입 · 지방이식 · 중증여드름 · 비만 · IPL

원장 김영덕(라파엘) 김혜영(에스텔)

문의 228-4232 / 위치: 남전주전화국사거리(구, 유수연성형외과)

충주 성모학교 신입생 및 편입학생 모집(사각정애)

1)대상: 유 · 초 · 중 · 고등부(재활과정 포함) 교육
대상자 및 중도실명인

2)원서 교부 및 접수: 2007년 11월 12일~12월 30일
(연중 수시 상담)

3)특전: 성심맹아원 입소, 취업알선, 대학진학지도등

4)상담문의: 043)852-1374, 843-1374

http://chungjium.sc.kr



교구장 일정

- 신학교 이사주교 · 교수회의
12월 18일(화) 오후 2시
- 국민자 가정 방문
12월 19일(수) 오전 10시

미사 · 행사 · 모임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익산 월례미사
12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 교육국 자모회 월례 미사
12월 17일(월) 센터
- 전주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군산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전주 시청 로사리오회 미사
12월 18일(화) 오후 6시 40분
- 환경사목 미사
임시공휴일(선거) 미사 쉽니다.
- 신학생 현장체합
12월 20일(목)~1월 26일(토)
- 고3, 대학생, 일반 예신 월모임
12월 23일(주일) 오전 10시 성소국
- 동전주하나회 미사
12월 23일(주일) 오후 2시 유아동

◆ 새 교구청 사제관성당에서 12월 10일(월)부터 성무일도를 겸한 새벽 6시 미사(월~토) 신자들도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무주청소년수련관 직원모집

1. 모집 부문 및 인원
 - ▶ PM(프로그램매니저) 1명-방과후 전담
 - ▶ SM(스케줄매니저) 1명-반 담임
2. 자격요건
 - ▶ 방과후이카데미(교육학, 아동복지학 등) 청소년지도사 자격자 우선선발
 - ▶ 청소년관련학과 출신자우대
3. 제출서류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사본 각 1부
4. 서류접수-12월 22일(토) 18시까지
5. 선발방식-서류심사 및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6. 접수-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094-1
7. 문의 ☎ 324-4241, 324-4242

교육, 피정, 연수

- 혼인 강좌
12월 23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 성바오로복지병원 5개월간 성령세미나
제일 '하느님의 사랑'
12월 17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성바오로 복지병원
문의: 245-5118-9
차량운행: 중앙성당에서 낮 12시부터 수시 운행
- 기자단 교육 및 모임
12월 22일(토) 오후 3시 신임기자 교육
오후 5시 정기모임

전주가톨릭신학원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2년제)

1. 모집인원 :
교리교육과, 성서교육과(주간)-50명, 신앙연수과(야간)-50명 / 성서연수과: 지역별
2. 지원자격
1)수도자 및 평신도 남·여 (연령 및 학력제한 없음)
2)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지 1년 이상 된자 (단, 성서연수과는 제외)
3. 원서교부와 접수 :
1)기간 : 2008년 1월 18일(금)까지
2)교부장소 : 전주가톨릭신학원, 교구청 1층 안내실, 각 본당 사무실
3)접수:전주가톨릭신학원(우편접수 가능)
- 4)면접:2008. 1. 19(토) 오전 10시 전주가톨릭신학원
*자세한 문외는 본당사무실과 신학원행정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원 행정실 : 063-255-2678)

기타

- 한국 가톨릭 남녀수도회 소개 영상물 방영
일시 : 12월 25일 밤 10시(KBS 1)
제목 : 천국보다 긴 계단(가칭)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12/2~8)
국민은행 중앙(지점)1,000,000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12월 8일 현재)

단위 : 천원

2008년 1,2차 침묵피정	구 분	예 산	납 부 액	비 율
일시: 1차>2008. 1. 7.(월)~10일(목) 2차>2008. 1. 14.(월)~17일(목) 장소: 광주 명상의 집 문의: 062-571-5004, 8004	본 당	15,000,000	13,102,168	87.35%
	사 제 단	1,000,000	1,436,444	143.64%
	개인및 타지역(특별헌금)	1,500,000	823,560	54.90%
	수 익 사 업	500,000	232,824	46.56%
	합 계	18,000,000	15,594,996	86.64%

2008학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종교미술학부 편입생 모집

모집인원 : 회화 / 조소 전공 14명 (학사편입 5명 포함)
원서접수 : 2008. 1. 17~1.18 (1호선 간석역 도보 5분)
문의처 : 교무과(032)438-8131~4
*2008년 8월 송도국제도시 제2캠퍼스로 이전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겨울성소피정

중등부 : 2008년 1월 28일~29일
고등부 : 2008년 1월 31일~2월 1일
장소-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참가비 2만원)
대학생 및 일반부 : 1차)2월 20일 21일
2차)2월 23일-24일
장소-대전 목동 수련소(참가비-2만원)
신청 및 문의 : 02-6364-5500 / 010-7141-5549

젊은이 송년 피정

일시 : 12월 29일(토) 오후 4시 ~30일(주일) 오후 1시 30분
문의 : 논산 씨든영성회
회비 : 2만원
문의 : 062571-3004, 010-5705-5004
사랑의 씨든 수녀회

젊은이들을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 2008. 1. 18(금) 오후 2시~1. 20(주일) 오후 4시
주제 : 성령을 받아들라!
대상 : 성령기도회에 관심 있는 젊은이 / 중등부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강당
회비 : 일만원
문의 : 011-490-5345

프란치스코 의료봉사 수녀회 겨울성소피정

일시 : 12월 31일~2008년 1월 2일(2박 3일)
장소 : 전남 장성 수녀원
대상 : 만 35세 미만의 젊은 미혼 여성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목주 / 참가비 : 없음
신청 및 문의 : 02-723-1615(서울 본원)
010-3759-8226, 017-552-1114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일시 : 12월 23일(주일)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614호
문의 : 011-9319-1690
대상 :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마리아 남자수도회 (마리아나스트) 성소 모집

대상 :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자
담당 : 김일영(프란치스코) 신부
문의 : 080-749-8547

송년 젊은이 피정

일시 : 12월 29일(토)~30일(주일)
장소 :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본원
문의 : 055-351-2285
오순절평화의수녀회

남전주 지구 본당 소식

노송동

주임신부: 282-9663 사무실: 282-9661 주임신부: 나준성
F A X: 282-9664 수녀원: 282-9662 서목회장: 한기성
E-mail: n422@chol.com

- 대림절 사랑의 성금 접수: 사무실
- 성탄판공: 평일미사 전 성사표배부 - 사무실
- 손님신부님 판공: 20일(목) 후6시~9시
 - ※ 전신자 및 초·중고생은 빠짐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세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23일(수) ※ 추신및축일연: 25일(목) 성탄미사후
 - ※ 신부님의 영육간에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바랍니다.
- 1. 자선주일: 2차헌금 있음
- 2. 성탄 대축일 미사시가 안내 ① 24일(월) - 새벽미사 있음.
② 성탄 밤미사 - 후9시 (구유예물은 봉투를 이용바랍니다.)
③ 25일(화) - 전9시, 전10시30, ※ 저녁미사는 없음.
- 3. 감사헌금: 익명 50만원, 후원표(바오로) 10만원 ※ 감사합니다.
- 4. 초·중고 성탄 예술제: 24일(월) 후6시
- 5. 성탄 제대꽃 봉헌합니다: 접수 사무실 이글라리수녀님.
- 6. 자선거와 오토바이는 자선거 보관소에 주차바랍니다.
- 7. 모임: ① 올프레이 - 오늘, 교중미사 후, ME - 오늘, 후5시
② 제대화 - 19일, 어머니미사 후
③ 자비의 모후 꾸리아 - 23일, 교중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315,700원 ■ 교무금: 2,057,000원

문정

주임신부: 221-9182 사무실: 225-9100 주임신부: 김용섭
홈페이지: www.munjeong.org F A X: 225-9101 서목회장: 조영중

- 성탄절 맞이 제대꽃 봉헌합니다. 사무실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는 자선주일로써 2차헌금 있습니다. 자주는 본당신축 2차헌금 있습니다.
- 1. 금년도 교무금 완납해주시고 내년도 교무금도 신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대림절 특강(세번째): 16일(주일) 교중미사중
 - ① 주제 - 본당사회복지문제 ② 강사 - 장상실 신부님
- 3. 환우봉성체: 20일(목) - 환우가 있는 가정은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4. 신축헌금: 익명 2만, 김연 전선순 각 3만, 이옥남 6만 ※ 감사합니다.
- 5. 감사헌금: 익명, 송월이, 조효순 각 5만, 김인실 10만 ※ 감사합니다.
- 6. 성탄절 미사 및 행사 안내
 - ① 성탄절야 밤미사 - 24일(월) 후9시(새벽 6시미사도 있습니다.)
 - ※ 성서필사자(신, 구약 전체) 사상이 있으니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② 성탄절 미사 - 25일(화) 전6시, 전10시(교중), 후 4시(어린이미사)
 - ③ 성탄예술제 - 25일(화) 후6시~(초·중·고등부) ※ 많은 관심바랍니다.
- 7. 감사합니다: 본당 김장김치 담글 때 후원해 주신 분들
 - ※ 최낙천(투카)-배추 30포기, 김옥자(아가다)-찰밥 할말
 - 사목회장님-굴 1박스, 서경숙(글라리)-청국장 20개
- 지난주 봉헌금: 1,026,750원 ■ 교무금: 7,220,000원

복자

주임신부: 286-3453 사무실: 286-3455 주임신부: 방의성
F A X: 288-3455 수녀원: 286-3454 서목회장: 구본성

- 1. 오늘은 자선주일이니다. 2차헌금 있습니다.
- 2. 금주 모임: 성헌 봉사단, 전례분과 - 오늘 교중 미사후
- 3. 주간 모임: 성모회 - 20일(목) 오전 10시
- 4. 성탄 판공성사: 19일(수)까지 매일 미사 전, 후에 있습니다.
- ※ 합동 판공성사 - 20일(목) 저녁 7시 30분~9시
- 5. 새 영세자 첫 교해: 22일(토) 특전 미사후
- 6. 차주 모임: 꾸리아, 반석회 - 차주 교중 미사후
- 7. 성탄 행사에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성탄 나눔 행사 봉헌판매가 16일까지입니다
 - ※ 봉헌판매 및 기증품 차주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8. 예비신자 모집: 예비신자 교리반에 많은 인도 바랍니다.
 - ※ 입교식은 내년 2월 17일(주일)에 있겠습니다.
- 9. 첫 영세자 교리시작: 08년 1월 2일 ※ 대상자는 수녀님, 사무실에 신청
- 10. 전례안내
 - ① 금주: 해설-이정애, 독서-김종오, 부부-복사-정기택, 김일호
 - ② 차주: 해설-김종오, 독서-박종호, 부부-복사-정동민, 오교성
- 11. 감사헌금: 신교영(프란치스코) 10만원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76,200원 ■ 교무금: 1,457,000원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사무실: 232-5005 주임신부: 문규현
보좌신부: 232-5002 수녀원: 232-5004 보좌신부: 전보근
F A X: 232-5003 서목회장: 이계훈

- 1. 성탄 판공성사: 성사표를 가지고 교 미사 전, 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손님 신부님 초빙 합동판공 성사 - 18일(화) 후8시
- 2. 대림 성탄 판공 문제집 - 물동이 - 답안 작성하여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 3. 사목회 임원 기록한 독서 봉사자 피정 ① 일시 - 22일(토) 후3시
② 지도 - 차주엽신부님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4. 사목회 월례회: 오늘 교중미사 후, 장소 - 사목회 회의실
- 5. 함께하는 여성 교육 수료자 모임: 16일 교중미사 후
- 6. 병자 영세체: 18일(화), 20일(목) 오전 ※ 거동이 불편한 환우를 모신 가정은 미리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7. 성탄 미사 안내 ① 밤미사 - 24일(월) 저녁 9시(임제미사)
② 본일(25일) 미사 - 09시, 10:30 (미사 후 친교 나눔 잔치), 저녁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문정성당

KBS 성탄특집 생방송 (한국 가톨릭 성지, 전주) - KBS 2TV, 12월 21일 금요일 14:00~14:50 방송 ※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상관

주임신부: 285-6654 사무실: 285-6652 주임신부: 전대복
F A X: 232-6652 수녀원: 285-6653 서목회장: 양주태
E-mail: sanggwancac@catholic.or.kr

- 세상에는 참 좋은분들도 많고 은혜 받을분도 많습니다.
 - ※ 성전건립 빛 청산에 도움 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자선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1. 성당청소구역: 21일- 의암, 마치, 소공동체
- 2. 교무금과 신축헌금을 12월말까지 봉헌부탁 드립니다.
- 3. 미사안내 ① 24일(월) 성탄전야미사- 저녁8시
② 25일(화) - 오전10시
- ※ 월요일, 화요일, 아침미사 없음.
- 지난주 봉헌금: 927,250원

서학동

주임신부: 284-8307 사무실: 286-4929 주임신부: 주 목 성
F A X: 232-9009 수녀원: 284-2276 서목회장: 유철갑
홈페이지: http://www.seohak.net

- 자세한 사항은 '본당 소식지' 참조
- 서학가족 실천운동: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 1. 전례부 해설자 모임: 16일(주일) 교중미사 후, 소회의실
- 2. 성모회: 16일 (주일) 교중미사 후, 강당
- 3. 손님 신부님 초청 판공성사: 18일(화) 후7시부터, 성당
- 4. 성탄 제대 꽃 봉헌: 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 5. 혼인 갱신식: 30일(성가정 축일) 10시30분(교중미사) 중 거행.
- 6. 제 3회 모이세·트리 정기공연 - 12. 22(토) 후 7시,
 - ※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64,720원 ■ 교무금: 1,835,000원

전동

주임신부: 281-0098 사무실: 284-3222 주임신부: 김용태
보좌신부: 282-7245 수녀원: 282-9234 보좌신부: 소채나
F A X: 282-6232 유치원: 284-8347 서목회장: 김연중

- 매일 셋째 주간: 복지주간 - 참된 이웃 되어 주기 -
 - ※ 다함께 기록한 독서(성경읽기)를 합니다.
- 오늘 자선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1. 성탄 판공성사: 성탄 대축일 전에 보시기 바랍니다.
- 2. 2008년도 교무금 신일: 판공성사 전에 전세대 빠짐없이 신일 하여 주시고 금년도 교무금 조속히 봉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3. 34대 사목회의 임원선출: 사목회장-김한중 요한 의
- 4. 재속 프란치스코 전동 형제회 임원선출: 회장-김일부 베드로 의
※ 전 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 5. 성탄절 세례: ① 세례식 - 22일(토) 후2시 ② 집중교리 - 18일(화)~19일(수) 후8시 교육관 ③ 면담 - 20일(목) 후7시~9시, 21일(금) 전 11시~12시
④ 전례연습 21일(금) 후8시 (대부모와함께)
- 6. 감사헌금: 박봉순 데레사 12만원, 김형중 베드로 40만원, 오근호 5만원, 익명 1백만원.
- 지난주 봉헌금: 3,103,550원 ■ 교무금: 12,946,600원

- 7:30 ※ 사랑의 나눔 돼지 저금통 봉헌 - 25일(화)
- 8. 성탄 제대꽃 봉헌: 뜻있는 분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 9. 본당 보수 헌금: 이규현 30만원, 유금순 20만원, 최두현 10만원, 함성태 김옥자 각 5만원 ※ 감사합니다.
- 10. 감사헌금: 신규언 100만원, 김미자 50만원, 박순례 15만원, 송태훈 이영희 각 5만원 ※ 감사합니다.
- 11. 교구청 신축헌금: 이보근 5만원 ※ 감사합니다.
- 12. 금년 교무금, 교구청 신축헌금, 애령회비, 사회복지 후원금, 제대회비, 자모회비, 성소후원회비 연말까지 완납 해 주시고 내년 분도 신납 바랍니다.
- 13. 오늘은 자선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1요한 4,21)

1. 오늘날 인류는 하나의 지구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세계화의 기조를 타고 신자유주의의 경제 논리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웰빙’을 구가하는 오늘날에도 물질적·정신적인 빈곤으로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연합(UN)의 통계를 보면 해마다 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 한국 천주교회는 대림 3주일을 자선 주일로 정했습니다. 대림 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자선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관장 자캐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앓은뱅이와 절름발이와 소경과 같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장애인들, 하늘에서 내리는 별로 여기던 나병 환자, 악령 들린 이들마저도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선은 예수님처럼 모든 형태의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3. 자선 활동은 본질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자선 활동은 쓰고 남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무엇이든 실제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유와 품위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올바른 자선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 나의 눈을 이웃에게 조금만 돌리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으나, 오늘날에는 세계 경제 규모 14위의 선진국 대열로 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의식주와 의료 및 교육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없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올 여름 수해로 인한 식량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림 시기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고 합당하게 맞을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사랑하도록 합시다.